



##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 1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 시행
-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주) 개소식가져
- 진주 혁신도시내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사옥 17층 건축심의 가져

### 지식정보 ..... 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사라진다
- 201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된다

-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60년 만에 창공을 다시 날다
- 함양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최우수

### 신기술 정보 ..... 9

-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제626호)
-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방법(제627호)

### 건설기술심의 현황 ..... 10

### 계약심사 현황 ..... 10

### 기술인 나눔정보 ..... 11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행

### - 7월 1일, 다양한 임대주택 보급 가능

지난 7월 1일자로 국토해양부가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을 변경 했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용지 7개단지 5,870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16호 등 총 5,986호의 주택에 17,400여 명이 입주하게 됐다.

창원 현동지구는 2005년 12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2007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이 됐으나,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해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됐다.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총 건설호수의 50% 이상을 6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돼 있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총 건설호수의 35% 이상을 장기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되고, 총 건설호수의 40%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건설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임대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조성 형식에서 벗어나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와 10년임대·분납임대 등 공공임대 및 일반분양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6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장기임대 1,124호 및 공공임대 1,038호 등의 임대주택, 85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분양 1,546호 및 일반분양 2,162호 등을 2013년 말까지 부지공급하게 된다.

한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LH 시행구간인 1공구는 26%정도를, 경남개발공사 구간인 2공구는 12% 정도의 부지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 친환경건축과 건축관리팀당  
(055)211-4433

##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주) 개소식 가져

### -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 본격 추진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간부문 시설의 조성·관리·운영과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게 되는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주)가 8월 1일(월) 오전 11시에 개소식을 가졌다.

사무실은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8층에 마련됐으며,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 현판식,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김갑수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현만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병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강현정 울트라 로봇랜드(주) 대표이사, 컨소시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로봇랜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게 됨에 따라 앞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29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민간 컨소시엄사(울트라건설, SK C&C, 정우개발, 대창건설, KNN건설, 광림토건, 삼성증권)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울트라로봇랜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건수)를 설립한 바 있다.

특히, 명목회사인 울트라로봇랜드 주식회사를 대신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정현주)를 설립 했다.

▶ **균형발전사업단 로봇랜드담당**  
(055)211-2183

**진주 혁신도시내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사옥 17층 건축심의 가져**  
- **청사 착공을 10월로 계획, 2013년 9월에 준공을 목표**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의 하나인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사옥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7월 28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한국남동발전(주)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개발지구내 공공기관 이전용지 11 블록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2만2천6백9십제곱미터 규모인 업무시설 용도를 건축심의 신청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가 신청한 건축은 진주혁신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로 글로벌 발전회사의 위상에 걸 맞는 디자인 요소, 기업의 위상, 진주의 전통, 지역간의 소통을 상징하고 최적화된 내·외부 환경을 구현, 에너지를 절감하는 외피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절감하였고 빗물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여 조경용수로 활용하며 생물 서식지 확보 및 쾌적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고 공해발생이 저감 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미래 에너지 자립형 탄소제로 도시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스마트 시티로 건설하게 되며 세계적인 건축주거문화 선도도시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성공사 공정은 74.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 분양이 활성화 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이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다.

▶ **진주시 혁신도시지원단(O55)749-5988**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7.20~8.12)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
3.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
4.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
5.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
6.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 보존 의무화
7.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년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 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
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 근거규정 마련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
4. 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
5.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
6.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
7.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O2)2110-6310

###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사라진다

#### - 상생의 정책을 통해 불법노점상 근절

국토해양부는 지난 30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휴게소내 불법노점상을 8.21(일)까지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다.

휴게소내 불법노점상은 1980년대에 진입하여 30년간 주차장 불법점유 및 휴게소 미관훼손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지난 30년간 근절되지 못하던 불법노점상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도로공사·휴게소운영자·노점상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덕택이다.

특히, 도로공사·휴게소운영자·노점상 등 3자가 3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의 협상 끝에 '노점상 근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노점상은 8.21(일)까지 자진해서 불법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다른노점상이 재진입 못하도록 노력하고,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자는 휴게소내 잡화코너(Hi-shop)를 개설하고 기존 노점상이 물품을 납품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잡화코너(Hi-shop)는 7.28(목) 서해안선 화성(목포방향)휴게소의 1호점 영업을 시작으로 8.22(월)까지 전국에 164개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잡화코너(Hi-shop) 설치·운영이 완료되는 8.22(월)부터는 국토부·도로공사·경찰청 및 기존노점상이 연계하여 더 이상 불법노점상이 휴게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휴게소 불법점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고속국도법 개정을 추진하여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한 관련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내 불법노점상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단장된 잡화코너(Hi-shop)이 운영된다면 난잡한 노점상의 불법영업행위에 눈살 찌푸리는 일 없이 국민들이 휴게소를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8.27(일)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해진 휴게소를 보여주게 되어 국격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02)2110-8733

## 201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 **종합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은 현대건설 1위**
- **평가부문별로 공사실적 평가는 현대건설, 경영평가는 삼성물산, 기술능력 평가는 현대건설 1위**

국토해양부가 7.29(금) 발표한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 의하면 현대건설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써,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도급제한 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전국 10,839개 종합건설업체, 43,660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① 종합적인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분야)을 순위별로 보면, 현대건설(11조 1,201억원), 삼성물산(10조 2,132억원), 지에스건설(8조 5,186억원), 포스코건설(7조 9,430억원), 대림산업(7조 3,632억원)순으로 나타났다.부문별 평가에서는 공사실적 평가부문은 현대건설, 경영평가 부문은 삼성물산, 기술능력과 신인도 평가 부문은 현대건설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② 주요 분야별 공사실적은, 토건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6조 6,152억원, 삼성물산이 6조 2,858억원, 포스코건설이 5조 7,687억 원을 토목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2조 6,022억원, 대우건설이 2조 1,019억원, 포

스코건설이 1조 8,600억원을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4조 5,730억원, 현대건설이 4조 130억원, 포스코건설이 3조 9,087억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이 3조 4,32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 1,411억원, 현대중공업이 2조 7,784억원을 조경 분야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899억원, 한화건설이 435억원, 오렌지이엔지가 401억원을 기록하였다.

③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보면, 토목공종 중에서 '도로·교량'은 삼성물산, '댐'은 대림산업, '항만'은 현대건설, '상·하수도'는 포스코건설이, 건축공종 중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은 대우건설, '광공업용 건물'은 포스코건설이, 산업·환경설비 중에서 '산업생산시설'은 대림산업, '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연도 시평액이 공시될 때까지 1년간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이번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홈페이지(대한건설협회 : [www.cak.or.kr](http://www.cak.or.kr), 공지사항)에 공시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http://www.mltm.go.kr)) 국민마당(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O2)2110-8733

###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http://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 항목(건축법)》

-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등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5천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4천건(80.7%)이다.

#### 《 2010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 》

	합계	허가	신고
신축	109,106	52,143	56,963
증축	35,139	12,670	22,469
대수선	1,567	1,211	356
용도변경	19,742	12,228	7,514
합 계	165,554	78,252	87,302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0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결과 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 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확산은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O2)2110-8212

##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 - 경남도, 주택·아파트·빌딩56만 3천건 변경

지난 29일 전국 동시 일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었다. 경남도는 그동안 1만6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도민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전국 일제 고지해 도로명주소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금번 도로명 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 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56만3천여 건이며, 전국적으로는 총 568만여 건으로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도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했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8월부터 도로명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약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도로명주소 동시 고시(2011.7.29.)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경상남도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055)211-3583

##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60년 만에 창공을 다시 날다 - 국내 항공기산업 메카인 경남의 눈부신 쾌거



1953년 국내 기술로 제작됐던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가 60년 만에 다시 부활해 경남의 하늘을 다시 날았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허기도 도의회의장, 정만규 사천시장과 공군,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대학교, 수성기체산업 등 관계자와 유관기관, 항공관련기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에 소재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부활호" 개량복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내 항공산업 최대 집적지로서의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경항공기 산업의 육성과 항공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항공산업 출발지로서의 상징성과 국가 항공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10억원을 들여 부활호 개량복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주관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총괄한 부활호 개량복원사업은 최초 설계자인 이원복(85) 예비역 공군대령을 포함한 산학연 항공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설계·해석·검증은 경상대



학교에서 제작·시험비행은 수성기체산업(주)에서 맡아 사업을 완료했다.

복원된 '부활호'는 기존 원형은 유지하되 반영구적인 보존과 성능개량을 위해 2004년 공군이 원형 복원한 도면을 토대로 최신 3차원 설계기술을 접목하여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구조해석 등 각종 테스트를 통해 설계를 검증했다. 또한, 전자식 계기, 항공기 및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낙하산을 장착하였고, 주날개는 알루미늄을, 동체와 꼬리날개는 최신 복합재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85마력 엔진보다 향상된 100마력 엔진을 장착하는 등 성능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상비행에 필요한 플로트도 장착 가능하게 했다.

한편 경남도는 '부활호' 개량복원을 통해 축적한 기체설계 및 조립·제작기술, 시험비행 데이터 등을 활용 산·학·연 항공기 연구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복원된 '부활호'는 정기적인 정비 및 시험비행을 통해 비행 가능한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경남 사천항공 우주엑스포 등 각종 행사시 축하비행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부활호' 개량복원을 시발점으로 친환경 소형항공기 개발 및 제작기반 구축과 함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항공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건립,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 등 항공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남이 국내 항공산업의 수도이자 주역으로서 우리나라가 2020년 항공우주산업 Global 7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전락산업과 항공산업담당(O55)211-2663

## 함양군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전국 최우수



함양군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에 목현 소하천을 출품하여 치수안정성, 친수경관, 생태·환경, 역사문화, 주민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목현 소하천은 2009년 6월 착공하여 총 연장 1.8km를 자연석 호안 및 식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설치하고 사업구역내 잔여지를 이용한 수변공원, 휴식공간, 가로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4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 하였으며, 제방을 이용한 위킹로드를 설치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소하천을 조성하였다.

특히 소하천 구역내 우수지 3개소를 설치하여 홍수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 시켰으며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과 수생태 복원,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소하천 정비사업 인센티브로 60억원(국비30억원, 도비15억원, 군비15억원)을 지원 받으며, 2012년 방재의 날에 대통령 기관표창, 담당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 설계자, 시공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다.

▶ 함양군 재난관리과(O55)960-4245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콘솔에스더블유씨 (대표자 이승복, 김화열)		
법 인 번 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3-1 태화빌딩		
전 화	02-3462-9865	팩스	02-3462-9867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626 호
- 기술분야 : 건축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서 안전시설(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난간대, 낙하물 방호선반)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행 골조공사 작업층의 2~3개층 하부 위치에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에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또는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마감을 적층식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벽마감용 가설공법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일원테크 (대표자 이두성)		
법 인 번 호	134811-*****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877-31		
전 화	032-225-1010	팩스	1566-6343

법 인 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이문규)		
법 인 번 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1-4		
전 화	02-2122-6795	팩스	02-2122-6960

법 인 명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법 인 번 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 화	02-2049-5114	팩스	02-2049-5117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27호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하는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연왕

### 제6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심의안건 : 2건( 실시설계 1, 건설사업관리(CM) 적정성 1)
- 요 청 자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균형발전사업단)
- 심의방법 : 소집심의
- 심의위원 : 13명(건축분야 외 3개분야), 12명(건축분야 외 3개분야)
- 심의일시 : 2011. 7. 7(목)
- 심의결과

공사명	공 사 개 요	심의안건	심의결과
LNG극저온기계 기술시험인증 플랜트 구축공사	· 부지:13,271m <sup>2</sup> 건축 : 연구동, 제어동 등 LNG.극저온플랜트 1식 · 공사비 : 168억원 · 기 간 : '11. 8. ~ '12. 12	실시 설계	조건부 가결
경남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 부지면적 : 1,259,890m <sup>2</sup> · 공사비 : 3,100억원(CM관련) - 공공부분 : 2,100억원 - 민간부분 : 1,000억원 · 기 간 : '11. 10.~'14. 5.	건설사업관리 (CM) 적정성	조건부 가결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1. 7	계	38건	61,901	56,700	
	토목	수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3건	42,863	38,590	
	건축	칠북면 보건소 신축공사외 2건	2,569	2,490	
	기계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 치공사외 1건	6,083	5,785	
	학술	합천영암사지 발굴조사외 1건	504	488	
	기술	칠원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외 4건	3,838	3,674	
	전기	남해소방서 신축공사(전기)외 6건	4,305	3,976	
	통신	남해소방서 신축공사(통신)	309	298	
	일반	거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 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외 3건	1,430	1,399	

▶ 계약기술심사관 (055)211-3511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 신고 및 제도 변경 안내

### 1.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 시행일 '10.12.30)
- 법령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차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2. 변경내용

- 종전 : 일괄신고시 전체 인정
- 현행 : '11년 9월 1일 이후는 5년 이내 마다 신고분에 한해 전체 인정
- 유예 : '11년 8월 31일까지는 전체 일괄 신고분 인정
- 규정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국토부 홈페이지 고시란 참조)

## 제95회 기술사 필기시험 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7. 15 ~ 7. 21	
<b>필기시험일</b>	<b>8. 7</b>	원서접수 (인터넷) 첫날
합격(예정)자 발표	9. 30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10. 4~10. 13	
면접시험 원서접수	10. 4~10. 7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면접시험	11. 10	
합격자 발표	11. 18	

## 제3회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7. 29 ~ 8. 4	
<b>필기시험일</b>	<b>8. 21</b>	원서접수 (인터넷) 첫날
합격(예정)자 발표	9. 2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9. 5~9. 16	
면접시험 원서접수	9. 5~9. 8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실기시험	10. 15~10. 30	
합격자 발표	11. 25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계약기술심사과)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42~6

FAX : (055)211-35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